

다산포럼

대학 평가와 사회형평성 지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예전에는 가난한 집 학생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명문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개천에서 용 났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대학 입시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구실을 했는데 반해, 지금은 대학 입시가 오히려 계층 이동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세습화하는 핵심 장벽이 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5년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29.2%로 당시 미국(40.5%),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 대부분 국가보다 낮았다. 그런데 외환 위기 이후인 2012년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33개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4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외환 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의사, 변호사, 공무원, 공기업, 재벌 대기업 등 고용 안정과 고소득을 보장하는 상위 10%의 일자리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경쟁에

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먼저 명문대에 들어가야 했기에 사교육 경쟁은 외환 위기 이후 거의 전쟁 수준이 돼버렸다.

사교육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교육이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 수준이나 역량을 높이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사교육에 찌든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 욕구나 몰입도가 떨어져 학습 역량이 하락하는 경향까지 나온다.

그러나 사교육이 명문대 입시 통과 경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자녀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학습 능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는 마이너스이지만 대학 입시 통과 효과는 있기에 사교육에 수십조원의 돈과 시간을 탕진하는 사회적 낭비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 경쟁에서 고소득층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대학 입시는 막대한 사교육비 낭비와 불평등의 세습화를 고착화하는 핵심 고리가 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예비고사, 학력고사, 본고사 폐지, 내신, 면접, 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논술시험, 수시전형, 추천서, 입학사정관 등 끊임없이 입시 제도를 개혁(?)했지만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지금도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서울대 폐지 및 국립대 통합안, 학원의 야간 학습 금지 등

여러 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개혁 조치가 그랬던 것처럼 설사 실시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을 도입해도 학생 선발은 결국 대학이 하는 것이다. 대학도 우수 학생, 더 정확히 말하면 우수 학생 표시를 지닌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 간 경쟁을 하고 있다.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고소득층 자녀들을 과도하게 많이 합격시킨 대학은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사교육 낭비를 조장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강남 3구 등 고소득층 자녀 입학 비중이 다른 대학에 비해 유별나게 높은 대학은 소위 명문 대학으로 불리는 10개 미만의 대학들이다. 이들 10개 미만의 소위 명문 대학에 들어가려는 욕심으로 사교육 경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참가자 대부분은 원래 목표한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으로 가야 하는 잔혹한 게임의 희생자들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하면 정부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을 평가하여야 하고, 재정 지원 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대입 전형을 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2016년 459억 원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어 대학 지원 예산 명목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예산 유인으로 대학의 입시 행태를 바꿀 수는 없다.

2016년 대학 지원 정부 예산 규모는 9.4조 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출연지원금 455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매년 받고 있다. 서울대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사회 형평성을 고려한 입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지만, 여전히 고소득층 자녀 입학 비율이 유별나게 높은 대표적인 대학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대는 대학 입시의 사회 형평성 책임에서도 그만큼 솔선수범을 더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고등교육법 개정을 해서라도 정부의 대학 평가에 신입생 구성의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를 포함시켜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비율이 유난히 높은 대학의 경우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학, 통계학, 사회학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대거 보유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학생을 선발하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신입생 선발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지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돼도 사교육 문제가 100%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층 입학 비율이 유난히 높은 상위권 대학의 입시 행태가 바뀌면 사교육의 입시 효과도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학원 등 이해 관계자와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있겠지만 사회적 기대 이익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특목고, 자사고, 서울대 폐지안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은가?

교단에서

달려와요 ‘부르미’



김진우 우산중학교 교감

제목이 이삿집센터 광고 같지만 부르면 달려오는 몇 분들에게 대해 쓰고자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지금 교실에서는 친구 사귀기가 한창이다. 3월에 만나 몇 달 지나다가 다시 5월경에 이합집산 과정을 거쳐 수련회, 수학여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학기말 짝 정리가 된다. 교육가족에게 3월은 새해 첫 달인 쉼이어서 바쁘고, 정성을 많이 쏟아야할 시기이다. 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일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르미’도 매우 바빠질 것이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부르미제도를 활용한 40여 편의 현장사례를 봤다. ‘달려와요 부르미’, ‘교육청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 ‘워기가정의 지원 사례’, ‘무조건

달려 갈거야’ 제목만 봐도 전문가들이 24시간 학생, 교원에게 어떻게 달려갔는지 생생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학생을 찾아 교육청의 부르미와 경찰, 학교가 긴밀히 협조하여 온전하게 귀가시키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내기구를 개최할 때 부르미의 도움과 안내를 받으면 가·피해 학생 학부모가 쉽게 합의점을 찾는 사례도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상담기관이나 의료진, 특별교육 등 학생의 추수지도에도 손길을 놓지 않았다.

119는 서비스 내용이나, 신속성, 만족도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 우리 사회의 119에 해당하는 것이 광주 시교육청의 부르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위급환자부터 별집이나 고드름 제거까지, 심지어 취객의 요구까지 부르면 달려오는 119. 위기 상황의 학생, 갑자기 닥친 돌발 상황, 교사 학부모 간의 갈등 문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부르면 달려오는 부르미. 더구나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긴밀한 연계와 협조는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속 있는 제도도 자리잡

고 있다.

부르면 달려오는 또 한 분이 있다. 매일 아침 신부님이 학생을 맞이해 주는 따뜻한 배움집 살레시오고등학교. 이 학교 장동현 교장 신부님 휴대폰 컬러링은 ‘무조건’이었다. 지금은 ‘별’이란 가곡으로 바꿨지만.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자, 이 정도의 가사면 그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가수 박상철이 부른 무조건은 가사가 좀 과장되어서 피식 웃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미지를 확 바꿔준 것은 장교장 신부님이셨다. 나도 컬러링을 ‘무조건’으로 바꿔볼까 했는데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학생이 부르면 밤이건 낮이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을까. 더구나 태평양, 대서양까지.

학생들과 어울려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10여 년 전부터는 계속 달려가는 마라톤에 꼭 빠졌었다. 지난 일요일에도 교원 4명과 함께 서

울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42.195km 완주를 하고 1m에 1원씩(1구좌 당 4만 2195원) 수천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지금까지 역대가 넘는 후원금을 모아 파푸아 뉴기니, 몽골, 캄보디아 학교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지원받았던 돈보스코 청소년교육을 이제 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에 갖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 노래 가사처럼 학교에서는 학생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고, 태평양, 인도양을 건너서 행편이 어려운 나라에서 부르면 달려가는 장동현 교장 신부님.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관리보다,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큰 목소리 정치인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백성들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와 주는 119. 위급하고 여러 손길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얽히고설킨 일처리에 힘들어하는 교직원들을 위해 무조건 학교 현장에서 달려가는 광주시교육청의 부르미.

이 세 ‘부르미’는 일하는 곳은 달라도 푸른 봄의 새싹처럼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나라에는 119가 있고, 광주시교육청에는 ‘부르미’가 있다. 장동현 교장 신부님과 차 한 잔 마셔야겠다.

기고

대선 주자들, 지역 제안 대선공약 실천해야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래 일정보다 빠른 ‘잠미대선’이 결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각 정당과 소속 후보자들은 세력 확산에 힘을 쏟고 있으며, 지지표 획득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각 지역들도 자체적인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지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몇 개월 전부터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대선 후보자에게

바라는 지역 대선공약을 발굴하였다. 그동안 지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공약 발굴을 위해 워크숍, 권역별 시도민토론회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최근 지역 공약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여건 변화와 지역발전 전략 등을 반영한 국가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광주, 전남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19대 대선공약과제로 제안하였다.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에너지 선도시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산업 중심도시 조성(5대 과제), 45억 아시안인의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4대 과제), 지역통합과 통일시대의 거점도시 조성(3대 과제), 사람중심의 휴먼시티 인프라 구축(3대 과제), 5·18 민주화운동 진실 규명과 정신계승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전남은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내 선도시구 지정, 글로벌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무안 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첨단CT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 등 20대 핵심과제와 지역발전 분야별 32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한부러인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경제, 문화, 생활공동체 부분의 공동공약 7대과제도 제안했다.

이번에 제시한 공약은 단순히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국가적, 글로벌적 성격을 갖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동시에 지역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부합한 과제를 발굴해 진정 지역과 국가가 상생하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된 지역공약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관심과 자세는 이전 대선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 제안된 과제 하나하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후보자들이 공부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 실태를 보면 지키는 공약이 아닌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광주지역 대선공약 이행률은 14.5%대에 머물렀다. 1건만 완료됐을 뿐이며, 아예 손도 못댄 사업도 6개에 이른다. 이전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대선 당시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며,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인기 있는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에 외서는 이 과제를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 높이지만 정작 당선되면 언제 그랬는가 식의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 국가의 재정문제,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무책임으로 인해 지역민의 마음은 상하고, 지역에 바라는 발전은 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19대 대선부터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에 머리를 맞대고 제안한 지역 제안 공약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진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 협력의 자세를 가진 후보자들의 진정성 있고 실제적인 의지와 계획을 지역민들은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19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광주전남 지역민의 목소리에 대한 신속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 지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대로 밝히는 후보에게 우리 시도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社說

잠시 ‘오월 결상’에 앉아 5·18을 기억하자

1980년 5·18 광주항쟁의 희생자와 ‘그날’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오월 결상’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일본 위안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5·18의 정신을 알리는 조형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18 기념재단(이하 재단)은 어제 서울 기독교회관 앞에서 오월결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기독교회관 고 김의기 열사가 1980년 5월 30일 5·18 광주 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투신한 장소다.

재단에 따르면 ‘오월 결상’은 5·18의 민주주의의 정신과 인권을 기리기 위해 광주를 비롯해 전국 100여 곳에 설치된다고 한다. 재단은 특히 기존의 기념물과 달리 시민 누구나 친근함을 느끼며 다가서 편히 쉬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기념물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월 결상은 국회의사당 경내에 첫 설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부산·대구·전주 등에 100여 개가 설치된다. 또한 5월 정신의 전국화를 위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18 학살 가해자나 광주 학살 부역자를 제외한 정부 인사, 국회의원, 일반 시민 등을 오월결상위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5·18을 경험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1980년생이나 젊은이들도 적극 끌어들이기로 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제 오월 결상이 5·18을 알리는 상징 조형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할 것 같다. 재단 측은 오월 결상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 장소는 물론 조형물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부디 오월 결상이 누구나 잠시 앉아 5월 정신의 송고한 뜻을 기억하는 쉼터가 되었으면 한다.

‘전두환 표창’ 아군끼리 난타전 벌여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이 농성 중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렀다가 ‘오월 어머니’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한 어머니는 “이곳은 전두환 때문에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발단은 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발언에서 시작했다. 문 후보는 옛그제 열린 KBS 토론회에서 “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을 막다가 총에 맞아 참군인 표상이 됐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과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나중에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같은 당 안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안희정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으며 박영선 의원은 “다른 후보가 전두환 표창 받았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해 놀랐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전두환 표창’을 폐기하라”고 공격했다.

‘전두환 표창장’ 발언이 이처럼 논란이 된 것은 민주당 국민경선이 호남권(27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른 쪽 캠프에서는 ‘전두환 트라우마’로 경선판을 혼들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문 후보의 발언은 작은 말실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의 말처럼 사병으로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을 표창을 받았다. 나중에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느 쪽이 됐는지 서로 간에 지나친 비난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애초 민주당 주자들은 ‘원 팀’을 강조하면서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무리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경선이 내거티브로 흐를 경우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98년 봄, 엄홍길 대장은 안나푸르니(해발 8091m) 등정에 나섰다. 세 번 실패한 뒤 네 번째 도전이었다. ‘캠프 4’를 눈앞에 둔 60도기암 경사진 설사면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가던 셰르파가 미끄러진 것이다. 그 뒤를 따르던 셰르파까지 로프에 휘감긴 채 설사면을 굴렀다. 엄 대장은 두 손으로 로프를 잡아 그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추락하던 2명의 셰르파를 구한 기쁨도 잠깐, 엄 대장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로프가 그의 오른발을 감는

도전 DNA

바람에 오른쪽 발목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진 것이었다. 사고 지점은 해발 7700m였다. 중상을 입은 그는 2박3일 간의 사투 끝에 하산해 베이스캠프 근처 4300m 지점에서 헬기로 후송됐다. 국내에서 수술을 마친 후의료진은 “다시는 산에 오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엄 대장은 피나는 재활 끝에 사고를 당한 지 10개월 만에 빼에 박힌 쇠핀 2개를 뽑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나푸르니 정상에 올랐다.

김홍빈 대장은 1991년 5월,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봉(해발 6194m) 단독 등

반에 나섰다. 그러나 고소증세와 탈진이 겹치는 바람에 의식을 잃었다가 16시간 만에 구조됐다. 후속 도중 양손이 심한 동상에 걸려 부득이 열 손가락을 잘라야 했다. 사고 이후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도, 양말을 신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산에서 얻은 장애를 산을 통해 다시 극복했다. 1997년 등반을 재개한 그는 그해부터 2009년까지 12년에 걸쳐 7개 대륙 최고봉을 하나씩 올랐다. 이어 8000m 급 14좌로 눈을 돌렸다. 현재 그는 8000m급 14좌 가운데 9개 봉을 올랐다.

김홍빈 대장이 이 바람에 오른쪽 발목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진 것이었다. 사고 지점은 해발 7700m였다. 중상을 입은 그는 2박3일 간의 사투 끝에 하산해 베이스캠프 근처 4300m 지점에서 헬기로 후송됐다. 국내에서 수술을 마친 후의료진은 “다시는 산에 오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엄 대장은 피나는 재활 끝에 사고를 당한 지 10개월 만에 빼에 박힌 쇠핀 2개를 뽑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나푸르니 정상에 올랐다.

김홍빈 대장은 1991년 5월,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봉(해발 6194m) 단독 등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4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